

2023 해양수산 전망대회

# 해운시장 시황과 이슈 전망

---

발표: 해운연구본부 고병욱 본부장

작성: 고병욱

# 주요 내용



**들어가며** : 불확실성과 투자

**시황전망** : 안정화 기대

**이슈전망** : 민간주도/정부지원

**나오며** : 협력을 통한 재도약



# 불확실성과 미래준비(투자)

미래 준비가 필요한 부문

불확실성

환경규제	➤ 낮음
탈탄소 기술 개발	➤ 높음
디지털 기술 개발	➤ 중간
세계 경제 / 정치 변동	➤ 중간
인구구조 변화	➤ 낮음

미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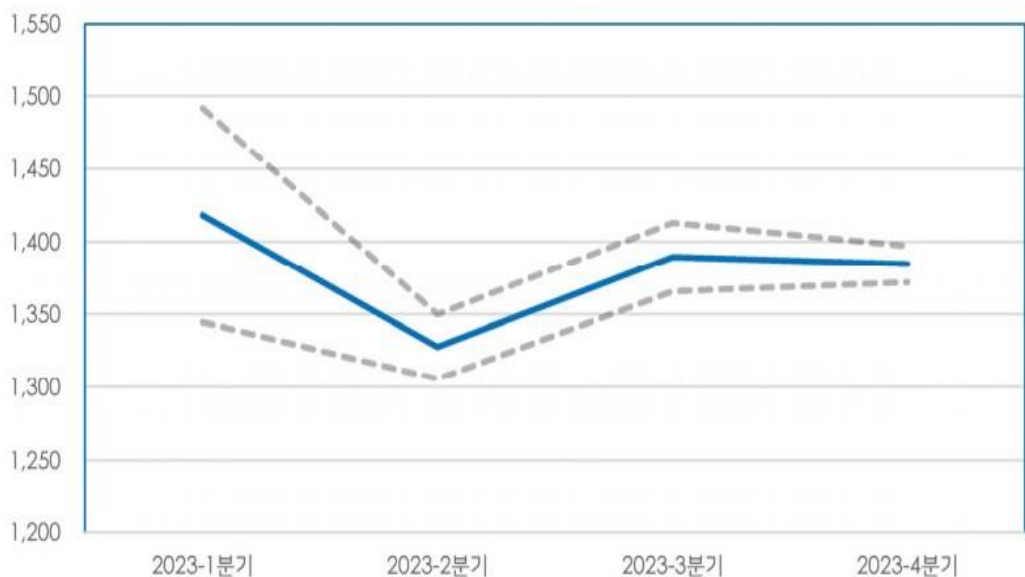
사람	➤ 인재 양성
기술	➤ 연구개발 / 협력을 통한 혁신
자금	➤ 투자 확대(민간주도, 공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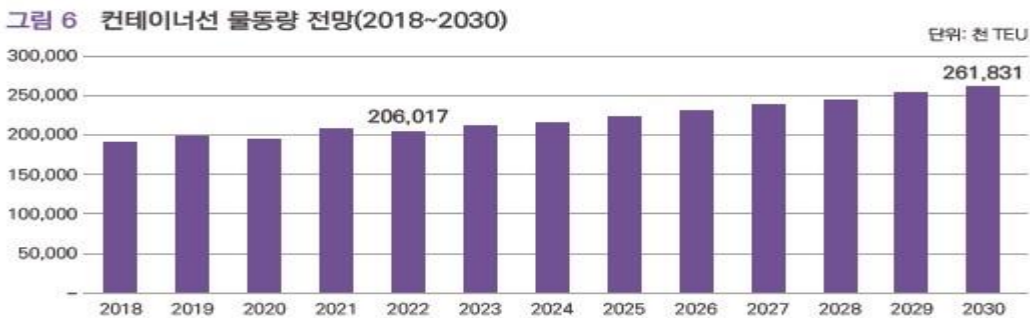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시황

➤ 운임 결정의 핵심 요인 : 물동량 수요가 아닌,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시황 결정

KMI, 2023년 운임 전망(22.11.10)



물동량 장기 전망



\* 2022년까지는 실적치

자료 : 해양수산전략리포트(2023) 중 “해운시장” 부분

GDP 물동량 승수 추이

구분	00년-05년	0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물동량 승수	2.45	1.47	1.30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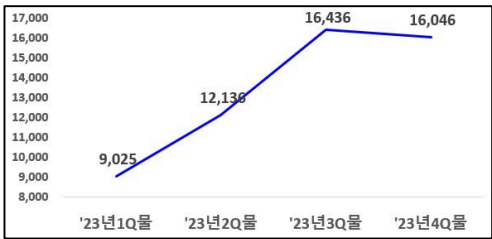
# 건화물선 시황

➤ 운임 결정의 핵심 요인 : 완만한 선대 증가에 복합적 양상의 수요 변동이 있으나 운임은 하향 안정세 기대

FFA, 2023년 BDI 전망



FFA, 2023년 케이프운임 전망(22년말)



FFA, 2023년 파나마스운임 전망(22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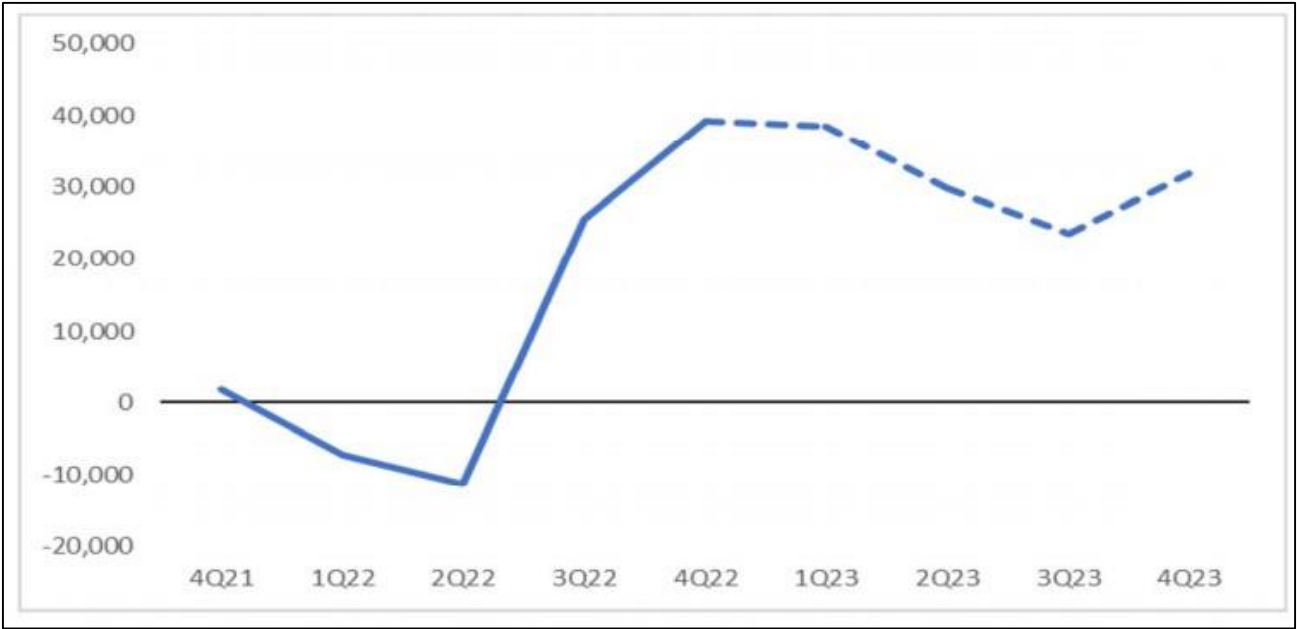
FFA, 2023년 수프라막스운임 전망(22년말)



## 유조선 시황

➤ 운임 결정의 핵심 요인 : 완만한 선대 증가에 수요의 안정적 회복으로 기저효과가 있는 전년 대비 상승 기대

KMI, 2023년 운임 전망(22.11.10)



# 해양수산부의 해운분야 업무 보고

##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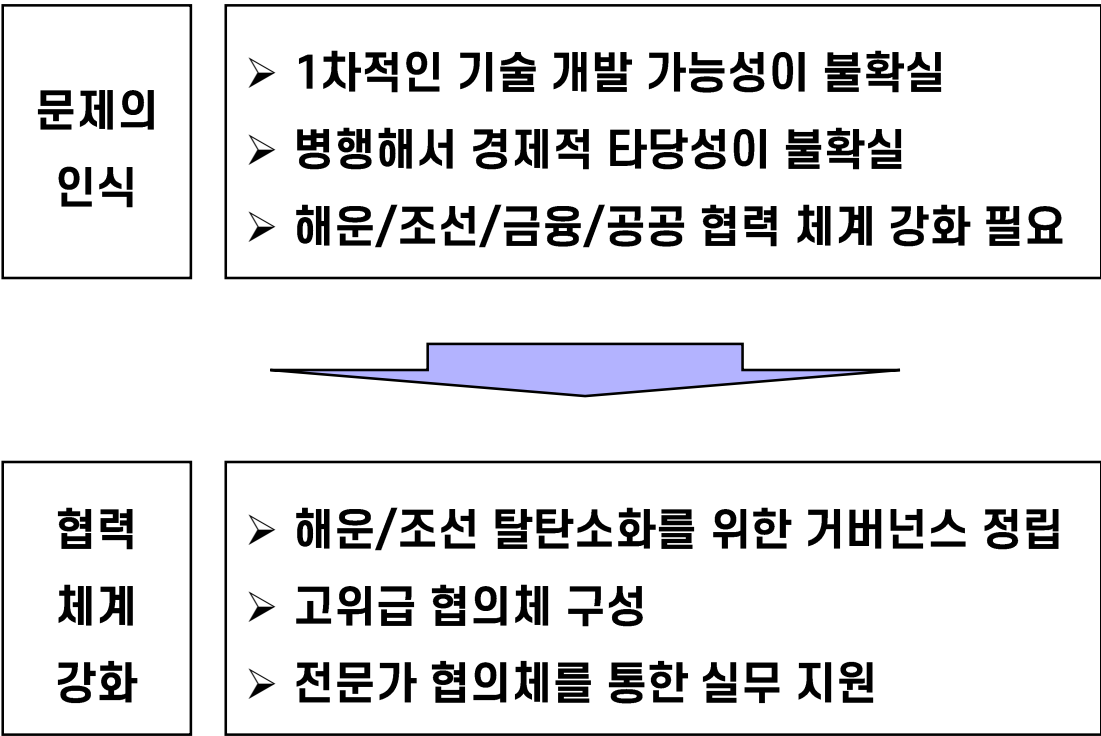
불황기 대비 경영 안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기대응펀드 조성(최대 1조 원), 중소 해운사 투자/보증요율 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0.3조 원)</li><li>➢ 선(先)매입/후(後)대선의 공공 선주사업 추진(-26년, 50척, 1.7조 원)</li></ul>
수출 주도 경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확대(부정기선으로), 법인세 감면 특례 정비(요건 완화, 규모 상향) 추진</li><li>➢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23년 시범사업)</li></ul>
시장 기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23년 하반기, 활성화 방안 마련)</li><li>➢ HMM, 민간 이양 여건 마련</li></ul>

##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 수립(23.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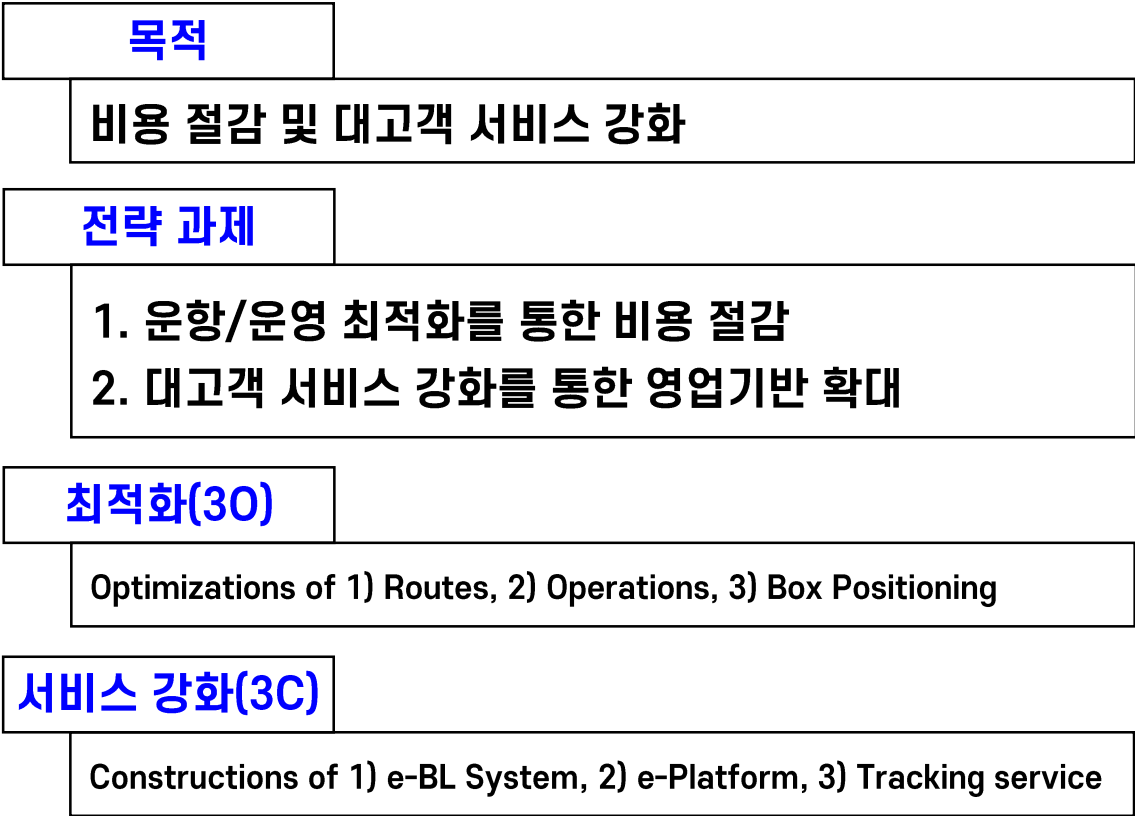
초격차 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5년, 587억 원), 실증센터 구축(23년, 울산)</li><li>➢ 저탄소(암모니아, LNG), 무탄소(수소)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개발(-31년, 2,540억 원)</li></ul>
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친환경 선박 건조/이용(선사/화주) 보조금(선가 10-30%)</li><li>➢ 금융 혜택(최대 3.4% 금리 우대) 등으로 시장 창출(-30년, 528척 전환)</li></ul>

# 2D(Decarbon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전환 가속화

## 탈탄소화 전환 : 단절이 아닌 소통



## 선사의 구체적 디지털 전환 전략 과제



자료 : 해양수산전략리포트(2023) 중 “무탄소 선박”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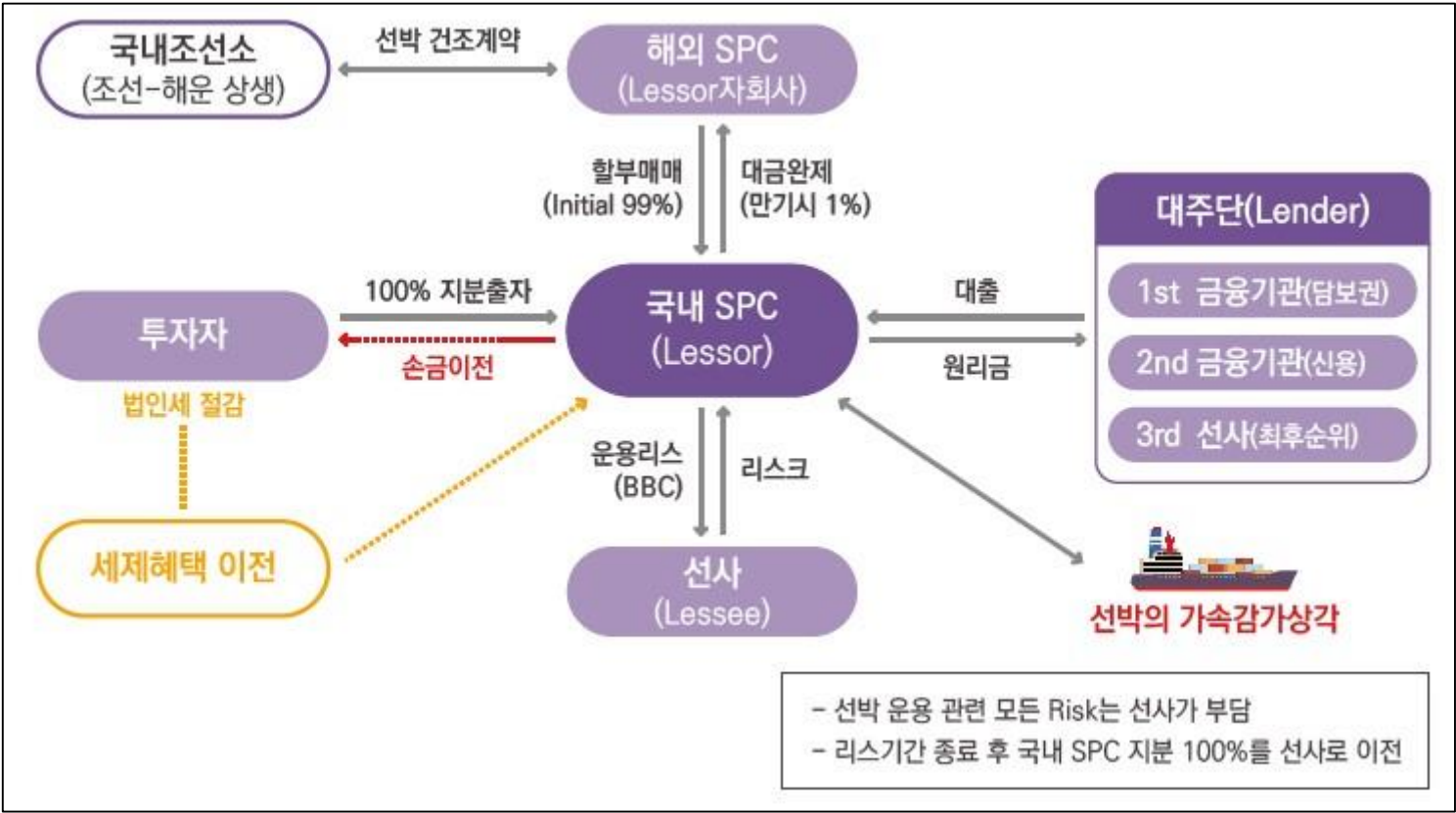
# 선화주 상생 경영문화 강화

## 선사/화주의 갈등 여지

<p>문제의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3년, 공정위-근해 컨테이너 선사 간 행정소송 진행(서울고등법원)</li><li>➢ 코로나19 여파로 선사 및 화주의 상대방 소송/중재 등 분쟁 급증 우려</li><li>➢ 환경규제 강화와 해운시황 급변동으로 운임을 둘러싼 선사/화주 간 갈등 재발 우려 상존</li></ul>
<p>문제 해결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정위/선사 간 행정소송) 선사의 공동행위는 실제로 있었고/미래에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행위의 불법성을 주장함에 있어 “산업정책의 불가피성”과 사법당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li><li>➢ 선사 및 화주 간 분쟁 해결 과정으로 갈등을 확대하기 보다는 상호 간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 해결 노력 긴요</li><li>➢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박 투자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 투자로 선사를 포함한 물류기업의 투자금이 크게 소요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선복조절 노력으로 운임결정(비용 전가 포함)에 대한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바, 투명한 운임 공표와 협상노력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문제해결 - 가능하면, 화주 및 선사의 ESG 경영지표에 이러한 노력을 포함시켜 제도적 해법도 모색</li></ul>

# 민간투자자의 선박금융 참여 활성화

##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도입



자료 : 해양수산전략리포트(2023) 중 “선박투자” 부분

#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과 재도약

산-학-연-정 파트너십 강화



# 감사합니다

THANK YOU